

‘꽃과 나무, 자연이 간직한 이야기 다룬 책’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땐 자연을 가까이 하면 답을 얻는다. 종교도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본다. 상처 난 마음을 치유받는 데는 자연이 제격이다.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는 데도 자연의 힘이 크다. 이런 자연을 과학 이상으로 다루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책이 나왔으면 한다.

김규원·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실장

서점에 갈 때마다 책의 종류가 정말 많음을 실감한다. 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요즘 세상에 ‘인간 구실’ 제대로 하려면 책 한 권쯤은 내야 한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더욱 필수다.

아무튼 나도 책 속에 갇혀 있던 것만 그렇다고 딱히 읽을 만한 책은 그리 흔치 않다. 내 취향이 별스러운지는 모르지만 마음과 영혼을 맑게 하는 책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찾게 되면, 마치 매혹적인 여인을 만난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행복감에 젖어든다.

춘분을 사나흘 정도 앞두고 섬진강이 있는 남도로 향하지 못한 나는 서울 도심에서 ‘약식 봄맞이’를 하기로 했다. 광화문서 근무하는 기자 친구와 국수로 점심을 해결한 뒤 혼자서 덕수궁을 찾았다.

덕수궁 돌담길의 상춘 단상, ‘생명과 자연’

봄은 아직 돌담에만 있었다. 까치가 앉아 지저귀는 흔들리는 나무에 봄이 왔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가지에 봄물이 오르려면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고개를 내밀고 손님을 맞이하는 새순도 없었다.

이날 따라 시집도 한 권 들고 있던 터라 양지쪽에 앉아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내려 갔다. 앉아 있으니 엉덩이가 차가웠다. 그래서 양반처럼 어슬렁어슬렁 걸기로 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이 나무 저 나무를 관찰했다. 아직 잎과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아 나무이름을 맞추기란 쉽지 않았다. 촌놈 출신이라 보고 자란 게 나무인데도 그랬다.

그러던 중 이런 생각을 했다. ‘자연을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책이 없다는 게 아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감성을 자극하고 생명을 일깨우는 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백과사전식의 책이 아닌... 뭐랄까, 예를 들어 ‘덕수궁의 나무들’ 같은 책일 것이다.

우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 해답이 있는 책

나무를 나무 이상으로 다룬 책, 동물을 동물 이상으로 다룬 책, 꽃을 꽃 이상으로 다룬 책 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책이어야 한다.



자연은 현대인에게 '책' 과 같은 존재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땐 자연을 가까이 하면 답을 얻는다. 종교도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본다. 상처 난 마음을 치유받는 데는 자연이 제격이다.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는 데도 자연의 힘이 크다. 이런 자연을 과학 이상으로 다루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책이 나왔으면 한다.

덕수궁에 가보니 이러한 나무들이 있었다. 말채나무, 자귀나무, 병꽃나무, 좀작살나무, 반송, 눈주목, 벽오동, 때죽나무, 칠엽수, 향나무, 벚꽃나무, 소나무, 진달래, 철쭉, 산철쭉 등등.

말채나무는 옛날에 가지를 말채쩍으로 사용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무의 껍질 형태와 색깔은 감나무 껍질과 비슷하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열매를 찢어서 물에 풀면 고기가 때죽음 당한다 해서 붙여진 때죽나무. '때'와 '매'는 다르지만 민중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이 나무는 영어로 'snowbell' 이라고 한다. 잎이 종모양으로 어긋나게 나고 늦봄에 흰 꽃이 늘어지게 피어서 그런가 보다. 칠엽수는 일곱 개의 잎이 모여 하나의 본잎이 되어서 그렇다 한다. 이 나무는 둥근 열매가 익으면 세 쪽으로 갈라진다. 프랑스에서는 마로니에라고 한다.

요즘 독도문제가 이슈다. 그럼 이런 책은 어떨까. '독도의 나무와 풀, 그리고 꽃'. 그런대로 읽히지 않을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면.

독도와 나무와 풀, 그리고 꽃 도 좋은 소재

어느 신문을 보니 독도에는 쭈과 민들레, 질경이, 기린초, 술패랭이꽃, 갯메꽃, 대나무, 팽이밥 등이 살고 있다. 질경이는 들과 길가에 흔한 식물인데, 익은 나물해 먹을 수 있고 씨는 약재(차전자)로 쓰이기도 한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우리 민족성을 상징하는 황토길에서 자라는 질경이가 있는 한 어찌 하지 못하리라. 메마른 땅이나 바위틈에 자라는 기린초의 생명력은 또 어떠한가.

옛 여의도광장 자리의 여의도공원에 가면 온갖 꽃들과 나무들이 있다.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공원을 찾고 있다.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농구를 하기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기도 한다. 가끔 음악공연도 열린다.

그런데 이 공원을 찾는 참맛은 나무와 꽃을 구경하며 한가로이 거니는 것이다. 나는 이를 '풍경산보'라 한다. 화살나무와 산딸기나무를 보노라면 창조주의 솜씨가 놀랍고 자연이 신비롭다.

이 산딸기나무의 자태를 제대로 본 기억이 있다. 파주의 한 퍼블릭 골프장 8홀 티박스에서다. 워터해저드를 내려 보며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언덕배기에 살고 있는데, 빼알간 딸기를 달고 뽐내는 모습이 너무 예뻐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름표를 가지기 전에 산딸기나무라고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책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찌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책은 '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목마를 때 찾는 샘. 책은 그래야 한다. 현대인은 자연에 목말라 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출판되길 바란다.

혹시 시장성이 없어서 망설이는 작가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십시오. '자연'을 다루는 것은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